

# 민주-평화-무소속 '한판 승부'

# 김철우-하승완 '박빙 승부'

## ■ 함평군수 후보

			
정당 더불어민주당	평화당	무소속	무소속
이름(나이) 김성모(66)	이운행(52)	노두근(65)	윤석규(69)
주요경력 전 함평군변영위원장	전 함평군의회 의장	전 강진군수 권한대행	함평문화원 이사
주요공약 ·통합과 화합의 균형 실현 ·공공기관 유치로 인구 5만 회복 ·우리밀 치즈마을 조성 ·사계절 휴양형 관광지 조성 ·함평을 전통시장 현대화	·공개·공정·공명·공감 '4공행정' 운영 ·영광~함평 해안도로 조기 완공 ·결혼장려금 지원·신생아양육비 인상 ·함평전지 한우·비빔밥 축제 추진 ·전 농경지 드론 농약 살포 지원	·연소득 1억원 500농가 육성 ·세계자연생태공원 조성 ·청소년 환경 교육장 조성 ·농어촌 특성 살린 사회적기업 육성 ·화합·소통 통한 서민복지 실현	·군수실·비서실·관사 폐쇄 ·무역진흥공사 설치 ·소분관광특구화 ·외국어로 유치 및 영어마을 육성 ·택시기사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 6·13 지방선거 표발 점검

### ■ 함평군수

안병호 함평군수가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파문으로 3선 도전을 중도 포기하고, 안 군수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올랐던 윤한수 전 나비골농협 조합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함평군수 선거는 새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선 안 군수의 지원을 받은 김성모 전 함평군변영위원장이, 박래우 전 전남도위원을 1.34%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공천권을 따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이운행 전 함평군의회의 의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노두근 전 강진군수 권한대행과 윤석규 함평문화원 이사는 무소속으로 도전한다.

민주당 김성모 후보는 통합과 화합의 균형 실현과 인구 5만명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직 퇴직자·출향인사 등을 군발전위원으로 위촉·자문을 받고, 군민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와 국립축산공학과 등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군수 급여를 100만원 받고 나머지는 인제양성기금 기탁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역대부농 청년농가 육성, 실버양봉품질관리센터 건립, 양파생력기계화단지 확대, 우리밀 국수·피자마을 조성,

### 김성모-이운행-노두근-윤석규 출사표

### 100원 택시 확대·나비축제 명품화 공약

돌머리지구 사계절 휴양형 관광지 조성, 골프대하 유치 및 골프아카데미 개설, 무료 이동빨래방 운영, 100원버스·100원택시 확대, 함평을 전통시장 현대화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평화당 이운행 후보는 '4공 행정'(공개·공정·공명·공감 행정)과 공정·투명 인사행정으로 군민 공감행정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민원소통실을 설치해 원스톱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영광~함평간 해안도로를 조기 완공하고 전가차 민간 보급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전사고·지진 대비 마을별 대피소 마련,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결혼 장려금 지원 및 신생아 양육비 인상 등 복지정책도 내놨다. 함평전지 한우·비빔밥 축제를 추진하고 함평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의 세계 명품화, 함평수협 설립 추진, 농부병 전 문지료사 배치, 전 농경지 드론 농약 살포 지원 확대, 소형저온저장고 보급 확대 등도 약속했다.

무소속 노두근 후보는 "함평의 현주소는 급격한 인구감소, 소득 감소 및 역외 유

출 등 낙후와 침체다. 함평을 살리려면 중앙부처 예산을 많이 가져올 능력과 행정력을 겸비한 군수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노 후보는 농·축·수산업 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업의 규모화하고, 친환경농업 및 감소농 육성으로 연소득 1억원 500농가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환경교육장과 봄비 시문학관 건립, 영산강·함평만·황금바위 생태보전지역을 연계한 세계자연생태공원 조성, 청년·노인 일자리 창출, 화합·소통을 통한 서민복지 실현 등을 공약했다.

무소속 윤석규 후보는 '민원 해결 군수'를 표방하면서 '3폐 정책'(군수실·비서실·관사 폐쇄)을 내놨다. 무역진흥공사를 설치하고 외국어고교 유치 및 영어마을 육성, 택시기사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등을 통해 고용 및 소득 증대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석계리·석창리 일대 바닷가수리 조성하고 해안일주도로 연장, 중기기관차 및 모바일바이크 운영 등 순분관광특구와 추진을 공약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함평=황운희기자 hwang@

## 6·13 지방선거 표발 점검

### ■ 보성군수

보성군수 선거는 이용부 군수가 뇌물 혐의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무주공산이 됐다. 고공행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의 인기로 힘입어 민주당 후보가 압승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관록의 무소속 후보가 등장하면서 '박빙의 승부'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3선 보성군의원을 지낸 김철우 전 의장을 단수후보로 공천했다. 여기에 맞서 재선 군수를 지낸 하승완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두 후보 모두 이 군수의 뇌물 비리 구속과 이에 따른 군정 공백 사태를 감안해 선거전략을 짰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보성군을 연결할 수 있는 '힘있는 군수'를, 하 후보는 '경험과 지혜가 있는 경륜 군수'를 표방하고 있다.

민주당 김철우 후보는 지난 12일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대통령 직속 국감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중앙인맥이 강점이다.

그는 특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30년간 민주당을 지켜 온 '의리와 집념의 정치인'임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김 후보는 "최우선 과제로 '보성다운 보성'을 만들겠다"며 "군수 구속에 따른 군정의 비정상성을 조속히 정상화해 실추된 보성의 자부심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대표 공약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해양수산 레포츠 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구제적외 보성을 약속 해소 대책, 특량만 바다농장화 사업 등을 꼽았다. 또 주

### ■ 보성군수 후보

	
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이름(나이) 김철우(53)	하승완(66)
주요경력 전 보성군의회 의장	전 보성군수
주요공약 ·별교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독자단지 대규모 공원화 ·12개 읍·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광주·전남 공동육아센터 추진 ·맞춤형 영농시설 및 장비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농림수축산업 미래지향 육성 ·독자수도 명성 재건 ·균형있는 지역 발전 ·복지·문화 함께하는 활기찬 보성

### 현직 군수 뇌물 혐의로 구속 '무주공산'

### 민주당 3선 군의원 대 무소속 재선군수 대결

안호 내륙습지 관광지원화, 독자단지 대규모 공원화, 보성 문화유산 남북교류 선 등 문화관광 공약과 12개 읍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귀농·귀촌·창업 원스톱 컨설팅 지원, 광주·전남 공동육아센터 추진, 맞춤형 영농시설 및 장비 지원 등 경제·복지 공약도 내놨다.

두차례 보성군수를 지낸 무소속 하승완 예비후보는 풍부한 군정 경험과 높은 인지도가 강점이다.

하 예비후보는 "4만5000여명의 보성 행정을 담당하는 군수는 권한보다 책임이 막중한 자리로 절대 리허설이 있을 수 없다"며 "특히 8개월여 기간 동안 군수 부재라는 보성군의 특수상황에선 군정 경험과 신뢰·역량 있는 사람이 구원투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성농차'와 '별교꼬막'을 지리적 표시 등록하는 등 전국에 보성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 후보는 "전국 1위 보성군을 만들었던 군정경험을 바탕으로 보성의 어려운 상황과 혼란을 조기에 극복하고, 뚜렷하고 당당한 보성군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하고 노후 복지 책임 행정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놨다. 또 공정·투명 인사로 군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환경 조성, 농·수·축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집중 육성, 독자수도 명성 재건,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있는 지역발전으로 복지와 문화가 함께하는 활기찬 보성 만들기 등을 약속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 선거구 축소... 민주 임용수-평화 이재인 맞대결

### ■ 전남도의원(함평)

함평군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당초 2개 선거구에서 단일선거구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 의원을 1명만 선출한다.

함평 광역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임용수 후보와 민주평화당 이재인 후보간 맞대결이 예상된다.

임 후보는 함평군의회와 전남도위원을 지냈다. 특히 4년 전 도의원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되는 행운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3년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전력 때문이다.

민주당 공천 기준에는 '뽕소니'의 경우 예외없는 공천 탈락 대상이지만, 임 후보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써 부처절 논란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평화당 이재인 후보는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을 지냈다. 이 후보는 점

### ■ 함평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임용수(62·민·전 전남도의원) 이재인(67·평·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민=더불어민주당, 평=민주평화당

단농업 육성과 농산물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청정 함평에 걸맞는 유기농 육성, 권역별 발전시스템 마련 등을 약속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함평=황운희기자 hwang@

## 1선거구 임영수 후보 홀로 출마... 6선 지방의원 탄생 관심

### ■ 전남도의원(보성)

보성군에서는 전남도의원 2명을 뽑는다. 보성은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지난 선거에서 유권자는 1·2선거구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선택했지만, 분당으로 민주당과 평화당으로 갈렸다.

제1선거구(보성읍·노동면·미력면·특량면·회천면·옹지면)에서는 민주당 임영수 후보가 홀로 뛰고 있다. 임 후보는 네번의 군의원과 한번의 전남도위원을 역임, 총 다섯차례 지방의원을 지냈다.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하면 6선 지방의원이 된다.

제2선거구(별교읍·검백면·율어면·북내면·문덕면·조성면)는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이 불출마하면서 경쟁구도가 치열해졌다. 민주당에서는 이동현 후보를, 평화당에선 김선배 후보를 내세워 의원에지

### ■ 보성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임영수(65·민·전 보성군의회 의장) 이동현(67·민·전 새마을운동 전남도지부 회장)
제2선거구	김선배(67·평·전 전남도 정무특보)

민=더불어민주당, 평=민주평화당

확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새마을운동 전남지부 회장을 지낸 경영인이다. 새마을운동 보성군지회장·별교읍변영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사회 활동이 활발하다.

김 후보는 전남환경운동연합 의장과 국민의당 전남도당 홍보국장을 지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국무총리로 발탁되면서 도지사 공석이던 지난해 6월 전남도 정무특보로 임명돼 논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 민주당 후보 6명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3일 나주 한전 분사 한빛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투표를 통해 확정된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6명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순위 1번(여성·경제·민생복지·양극화 해소 분야)에 윤명희 전남도당 여성위원장을, 순위 2번(남성·노인·장애인·지역 분야)에 한근석 노후연계단 전남지역위원회 상임대표를 각각 확정했다. 순위 3번(사무직·당직자·사회적 다양성 분야)에는 정옥남 전남도당 여성국장을, 순위 4번(지역구 정수 축소 지역)에는 김경자 광주전남행복발전소 공동대표를, 순위 5번(여성·농업인)에는 김영자 중앙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순위 6번(남성·노인·장애인·지역 분야)에는 정찬규 중앙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결정했다.



#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오티콘 보청기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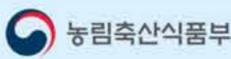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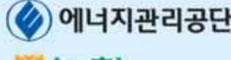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 농촌의 새로운 희망


##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원금, 이자 빼고 6~8% 가능

**장기 임대주실 분** ▶ 20년후 기부채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